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연극 관람지원사업
“드림 시어터(Dream Theater)” 연극 “레미제라블”

1. 사업명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드림시어터”
2. 주최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3. 지원 :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후원 :  스포츠도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5. 공연명 : 연극 “레미제라블”(런닝타임 150분)

구분	일자	시간	신청가능 좌석수
1)	2012년 12월 20일	15:00	580
2)	2012년 12월 21일	15:00	580
3)	2012년 12월 25일	19:00	580
4)	2012년 12월 26일	15:00	580
5)	2012년 12월 27일	15:00	580
6)	2012년 12월 28일	15:00	580

6. 공연일시 : **선착순 접수마감** (회당 총 좌석 수 580석)
7. 공연장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8. 기 타 (필독)
 - 가. 교통비 지원 없음
 - 나. 좌석등급은 공연장 등급 비율에 맞춰 지급
 - 다. 인솔자는 초청인원의 3% 이내로 신청가능
 - 라. 참가자 명단 엑셀자료로 필히 제출 (기관명, 참가자, 인솔자 명단(성명, 성별, 관람일시, 비고))
 - 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성명, 성별만 제출 - 추후, 방문을 통해 인원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9. 문의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담당 : 편창훈
 pyun801116@naver.com

50 대안극장을
연출한 시리즈

남무는 연극연습의 공공지원시리즈

연극계 최고의 화제작, 다시 만나는 감동의 무대

les misérables

 레 미제라블

연론이 극찬하고 관객이 열광한 명품대작!
2012년 겨울, "장발장"의 감동을 전합니다.

2012.12.19(수)~12.30(일) 남무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명작소설에 버금가는 대작무대 -문화일보
공성하면서도 섬세한 미장센이 빛어졌다 -동아일보
대극장무대를 최대한 활용한 무대미술품은 스펙타클하다 -이데일리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2011년 연론이 주목한 대작!!

연속 매진! 매회 기립박수의 신화!
한국 연극계의 최다인원이 참여한 기록의 역사!

STORY OF THE STAGE

연극 《레미제라블》은 '정통연극 상연'을 통한 감동 선사라는 그 취지가 차고도 넘쳤다. 빅토르 위고의 대작 소설 《레미제라블》은 박진감 넘치는 무대언어로 2시간 30분 동안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1막이 개인적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진잔하고 은은한 감동을 준다면, 2막은 파리 광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혁명을 외치는 사회적·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웅장하고 격정적인 감동을 미주하게 된다. 장발장과 험사 지베르로 대표되는, 대립항으로 설정된 여러 인간군상과 사회상, 심지어 각 인간내면의 이중성은 극중 세계에서 극한대립을 보이며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가슴을 울격하게도 하고, 딱한 울림을 주기도 하지만, 두 남녀의 사랑에 철이 마르고 코제트 양부모를 비롯한 배역들의 밝고 경쾌한 악살에 마음이 밝아지기도 한다. 어린 코제트, 동전을 빼앗긴 소년, 미래엔 대주교 코제트를 만나 기쁜 테너르드와 그의 부인, 코제트의 어머니 팡틴, 마리우스의 할아버지 질르노르망 등 각 등장인물의 연기장면이 주는 다양한 느낌들이 생생하다.

-CBS문화부 김영태 기자 "연극 《레미제라블》, 무대에 펼쳐진 진한 감동" 중 발췌



SYNOPSIS

"기억해 두시오, 자베르"

난쟁이 한 조각 때문에 19년 만에 자유인이 된 장발장이오!"

대혁명의 물결로 술렁이던 프랑스, 누이동생과 조카일금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 장발장. 그는 배고픔에 못이겨 빵을 훔치다 3년형을 선고 받는다.

탈옥을 시도하다 힘이 늙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

세상에 나온 장발장은 미라벨 주교의 신세를 지게 되지만 은전시를 훔치는 것으로 은혜를 되갚는다. 헌병에게 끌려 온 장발장에게 주교는 자신이 준 선물이라며 구명해주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8년 후 장발장은 구슬공장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사장으로 추대된다.

헌병 장발장을 쫓던 자베르는 장발장이 살고 있는 도시로 발령받게 되면서, 의인이 된 장발장과 장발장이 죄언임을 밝혀내려는 자베르의 보이지 않는 추적전이 시작된다.

CHARACTER & CAST

장발장, 자베르, 미라벨주교, 프티베르케, 팜틴, 테나르디에, 테나르디에치, 코제트, 마리우스, 에포닌, 질르노르망, 앙줄라, 가브로슈 등.

개성있는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명품배우들의 출연!

오현경, 박웅, 정상철, 문영수, 박상규, 이재희, 김희영, 고인배, 박정순, 박광영, 한근욱, 이경희, 최상규, 아용녀, 차재성, 김준기, 도영희, 노영희, 정아주, 박기산, 최병규, 정승기, 김인득, 노진우, 유진희, 권남희, 조문경, 한필수, 정종훈, 고경희, 송현석, 김윤태, 문창원, 홍부향, 정정차, 원종철, 김정현, 조예현, 박소정, 박혜영, 임형실, 김명, 김진영, 신주호, 윤도훈, 송지나, 송현섭, 김휘연, 유진영, 이가을, 정매산, 이지훈, 정예진, 민예달, 김해연 / 특별출연 : 홍창진신부, 이선백(아코디언)

CREATIVE & STAFF

원작 : 빅토르 위고 (Victor Hugo)

"인간에게 비판다는 일이 허락되고 있는 한, 나는 인간의 불운을 뿌리 뽑으려고 하고, 비참을 몰아내고, 무지를 없애주고, 병을 치료하고, 증오를 이워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상과 같은 것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레미제라블>을 썼던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출판후 작품을 비판한 작가에게..."

각 색 : 국민성

연 출 : 박장렬

예술감독 : 윤여성

주 최 : 50대연기자그룹, 한국공연예술센터, MBC

주 관 : 서울연극협회, 드림엔터테인먼트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극안복지재단,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스포츠포토온라인(주) belman.co.kr

les
misérables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les-miserables.co.kr